

## 중앙대부속 필동병원 매입

### 12월 최종 인수... 리모델링 통해 교육공간으로 활용

본교가 중앙대 부속 필동병원(4천8백평)을 274억원에 전격 매입했다.

학내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 등의 공간 확충을 고심해오던 본교는 중앙대측이 메디컬센터의 신축을 앞두고 자금 조달을 위해 필동병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이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매각은 신축 중인 병원공사자금을 확보하려는 중앙대측과 학교 주변에 교육공간을 확보하려는 본교의 필요조건이 일치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중앙대는 신규 공사 자금을 확보하게 됐고 본교는 필동병원을 향후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 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심사팀 유광호 계장은 "필동 병원 위치가 본교 캠퍼스와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해 교육환경개선과 학교 홍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본교의 경쟁력을 앞당기고 자금 조달을 위해 필동병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이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중앙대부속 필동병원은 현재 높이 11층인 구관과 4층인 신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연건평 4천8백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매입과 관련해 총화 생활측에서는 공간이 확장된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이러한 거대 비용이 지출되어서 이번 등록금이 인상된 것은 아니

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교측은 "사립학교법 상으로도 학교 교육 시설 확충에 드는 비용은 교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만큼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필동병원은 12월에 인수될 예정이며 인수 전 공간 사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창현 총무처장은 "인수 직후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공간 배치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이사장 현해스님 취임식 16일 중강당에서

동국학원 제21대 이사장 현해스님의 취임식이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취임식은 전체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무성영 화상영 △변사공연 '이수일과 심순애'가 상연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개회사 △삼귀의례 △취임사 △내빈축사 △축가 △사후서원 등이

진행된다. 2부 행사 후에는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으로 이동해 저녁식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본사기자들과 불교계신문기자들 참석하 가운데 이사장과의 간담회가 본관 이사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사장으로 취임한 소감과 재단의 위상과 역할, 동국대 발전을 위한 구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 관련인터뷰 4면

## 12기 한총련, 오는 19일 출범

### 타운동권 아우르는 5월 축전도 준비

제12기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및 출범식이 오는 19일부터 3일간 광운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첫날 대의원대회, 둘째날 출범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는 △새내기를 위한 강연회 △12기 한총련 문예이론 대토론회 △12기 한총련 교육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일꾼 교양대회 등이 진행된다.

이어 다음날(20일) 저녁 11시부터는 한총련 출범식이 이어진다. 이날에는 △새내기 환영 한마당 △한총련 결의의 밤 △몽룡십 및 출범선언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번 출범식부터는 한총련 외의 타 학생운동단체를 포함한 일반 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로 만들고자 '5월 축전'과 분리시켰다. 작년까지 한총련 출범식은 5월 말이나 6월에 진행됐다.

한편, 지난 2003년 출범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역시 본격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출범 전부터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던 한대련은 지난 7일 한성대에서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김동재 동아대 총학생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 불교원전연구 불교학보 발간 불교문화연구원에서 출판

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원전연구 15집, 16집과 불교학보 40집을 이달 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불교원전연구에는 불교 관련 원전에 대한 주석 등이 담겨있으며 매년 봄, 가을에 출판된다. 또한 불교학보는 학내외 10여명의 불교관련 논문을 모아 매년 한부씩 발간되며 올해로 40년째를 맞는다.

## 보직 인사 단행

본교 보직인사가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연구처장=박종훈(윤리문화학) △총무처장=정창현(정보관리학) △불교병원개원추진단장=배성현(의학) (이상 3월 1일자) △의료원 기획관리실장=하정운(경영주병원 사무국장) 이진배(이상 8일자) △비서실장=차준환(이상 9일자)이다.



드러누운 심정... 지난 12일 오전부터 '국민의 힘' '노사모' 등 9000여 명의 노동운동 지지자들이 국회앞에 모여 탄핵안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탄핵안 가결 소식에 전해지자 아스팔트 바닥에 어깨를 걸고 드러누워 통곡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 축구부 전국대회 8강진출

### 오늘 안양LG와 나비구장에서 격돌

본교 축구부(감독=김용해)가 '제52회 대통령배 전국축구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다.

축구부는 지난 11일 예선예선대를 상대로 1:0으로 승리했다.

또한 이를 후 열린 배재대와 1:1로 비겨 승부차기까지 치른 결과 4:3으로 승리해 안양 LG와 8강

전을 치르게 된다. 8강전은 오늘(15일) 1시 경 남해 나비구장에서 치러진다.

이와 관련해 축구부 김상화 코치는 "프로팀이라 경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4강까지도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 다 함께 "전쟁 반대"

### 국제반전행사 20일 시청앞에서 진행

'3·20 국제반전행동의 날' 행사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국제반전운동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지 1년이 되는 오는 20일에 전 세계적으로 반전행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날 미국의 이라크침략과 식민통치를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과평반대국민행동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3·20 전세계 반전행동 한국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대중적인 항의시위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생단체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 보리소

### 대통령 탄핵과 육도윤회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3자 입장이야 둘 다 지지분하다고 볼지언정, 그래도 둘은 분명 다르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잘 나타난다. 인과(因果)는 업(業)의 경중(輕重)에 따라 여실히 받기 때문이다. 육도윤회(六道輪廻)가 그걸 잘 말해주며, 이 윤회를 벗어나 인과를 받지 않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요, 그 세계가

곧 무여열반(無餘涅槃)의 경지다.

범법행위의 경중을 따져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상식이요, 모두에게 부여된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집단이 지메를 가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호도하는 몸짓은 주먹세계에서도 아주 저질의 주먹들만이 써먹는 행위이다. 그런 비상식적 행동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회에서 스스로없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현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안이 가결됐다.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그들의 반역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행태는 단죄해야 마땅하다. 스스로 저지른 야만적 행위를 민주주의의 승리요 국민이 뜻이라 호도하며 자축하는 저들의 마음 속에 과연 국민이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지 의심스럽다.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고서도 정략적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가리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 국민의 한숨만 가중시키

고 있으니, 과연 제정신인가 말이다.

우리는 지금, 미친(달리 표현할 게 없다) 정치인들의 실상을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 역사는, 아니 국민은 그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시계를 거꾸로 흐르게 하는 저들이야말로 국민의 탄핵감이고, 엄중한 장례식을 치러야 할 장본인들이기 때문이다.

하 춘 생 주간불교 편집부장

## 지면안내

### 5면 학술

#### 청계천 문화유적을 알아본다



콘크리트에 매몰돼 빛을 보지 못한 편한 600여년 전의 역사 유적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 3면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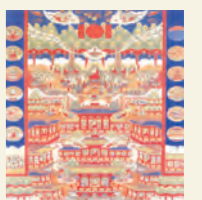
#### 보궐선거 후보자 인터뷰



지난 14일 단과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에 단과대 입후보자들을 만나 보았다.

### 8면 문화

#### 불교미술



한국불교미술관을 찾아 불교미술만의 특징과 감상법 등에 대해 알아 보았다.

수습기자 모집광고

## 잠자고 있는 당신의 능력!

## 동대신문사에 '투자' 하십시오

동대신문사에서 제46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 일 시 : 3월 25일(목) 오후 6시
- ▲ 모집인원 : 00명
- ▲ 응시자격 : 1학년 남·여 재학생
- ▲ 원서교부 : V동 1층 동대신문사
- ▲ 문 의 : ☎ 2260-3491~2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동대신문사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체계 도입

## 감사·선거 등 총대의원회 업무 일괄 처리

이번 학기부터 현 학생회 체계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체제로 변화돼 감사와 선거 등 이전 총대의원회(이하 총대)가 담당하던 주요 업무들이 전학대회를 통해 일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실상 단과대 대의원회와 총대는 해체되고 대신 각 단과대학년 대표까지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통해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체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체계로는 학생대표자들을 하나로 응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총대의 경우 예산과 감사 등 주요 사업이 있을 때에만 활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과대별 자체 감사 역시 일부 학생대표들의 책임감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학생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36대 총학생회는 전학대회 체제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논의 해왔다.

타 대학 역시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지난 90년대부터 전학대회 체제와 관련한 계획을 세워왔다.

광운대의 경우 95년부터 총대를 해체하고 전학대회 체제를 도입했다. 한양대, 서울대, 단국대 등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학생 대표자의 참여가 부족해 학생대표자회의조차 번번히 무산되는 상황에서 전학대회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또한 그동안 일부 학생대표자가 맡아 오던 일을 단과대 학년대표까지 모이는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점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회에서는 감사와 선거 등 특별한 활동기에 '전학대회 산하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회의전 안전 발제문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게 해 절차상 의견

수렴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학생회대표들과 일반 학생들이 전학대회를 통해 참여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 총대 사무국장은 "시행 초에는 새로운 변화로 어느 정도 혼란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으로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학생대표자회의와 31일 학생총회를 통해 전학대회 체제의 향후 세부 규정과 회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회전무대

## 고무줄 강좌

0...모대학 전공 강좌 중 하나가 교수 개인 스케줄에 따라 수업이 진행돼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데.

원인인즉,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주 2회인 수업을 주 1회로 줄여 연강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강좌를 개설할 때, 교과과목과 교수간에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학생들의 입장 고려 없는 그들, 탄핵안을 제출하라(!)"

## 동아리 사슬

0...요즘 각종 동아리·소모임들은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인다는데.

알아보니, 홍보 대자보나 팸플릿을 벽보로 게시할 때 이미 게시된 홍보물을 떼고 자신들의 것을 붙이는 것이라고.

신입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신입생 유치 경쟁, 피도 눈물도 없이(!)"

## 다용도(?) 화장실

0...중앙 도서관 2층의 장애인 화장실은 다용도로 탈바꿈 했다는데.

알아보니, 화장실 여기저기에 빨래가 널려 있는 등 창고 역할도 하고 있다고.

이용 빈도가 낮더라도 장애인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중도의 장애인 화장실, 알아보니 장애(?) 있는 화장실"

## 장식용 팻말

0...본교 자동차 출입문마다 있는 자동차 10부제 팻말은 '장식용' 이라는데.

이유인즉, 자가용을 이용하는 학내 구성원들이 10부제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10부제 위반 시 적용되는 학교의 작은 제재 또한 아랑곳하지 않는 등 자동차 10부제 운동을 무색하게 하는 비양심의 운전자들이 많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열혈에 한 번 기회는 있다. 10부제 위반 구타팀 찬스(!)"

## 신임 총무처장 인터뷰

# “학습 분위기 조성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총무처는 학교의 전반적 행정을 맡고 있는 부서로서 학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건물과 시설의 유지, 관리 및 각종 공사와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다. 이에 정창현 신임 총무처장을 만나 공간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취임 소감은.
  - = 총무처는 학교의 전반적인 살림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한다. 학생, 교수, 직원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만큼 여가가 무겁다.
-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 = 학내 교육 환경 개선을 최대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 학내 강의실과 연구실 부족 문제를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간 확충 뿐 아니라 시설 및 연구실습 기자재 관리와 확충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 중대필동병원 인수 후 리모델링 계획과 향후 공간 사용 방안은.
  - = 중대필동병원은 올 12월

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공간 재배치 위원회를 여는 등 충분한 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구도서관 리모델링이 지연되고 있는데.

=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와 학교간의 이해관계 조율 등으로 많은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 업체와 계약 체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큼 계약이 성사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한다면 올해 말 즈음 완공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학생대표자 회의 개최

## 오는 17일 중강당에서 ... 회칙 개정 등 논의

총학생회(회장=구자용·야간영문4)는 오는 17일 중강당에서 학생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새학기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총노선 확정 △회칙 개정 △학원자주화 투쟁 방향 등과 관련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전국학생대표자회의 회칙과 새터사고 2.17 추모제를 총학생

회에서 주도하는 것에 대한 회칙 개정 논의가 자세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단과대 학생회장만이 가진 의견권이 각 학년 대표들에게로 확대됐다"며 "학생대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취업의 문 '푹푹' ... 삼성 에버랜드가 지난 10일 본관 3층에 있는 취업자 로실에서 올해 2월 졸업자, 8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리크루트를 실시했다. 황주상 기자 hjsa228@dongguk.edu

# 서암학술재단 연구지원자 모집

## 오는 26일까지 대학원 교학부에서

대학원 교학부에서는 서암학술재단 연구지원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자격으로는 현재 박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으로 타 재단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아야 하며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제출서류는 △연구지원서 △신

상 명세서 △연구 계획서 △소속 대학교 총장 추천서 △심적 증명서이며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명이 선출돼 2년의 연구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선발자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월 7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 민법총칙 특강 신청 17일까지 계산고시학사

계산고시학사는 오늘 17일부터 6일간 민법총칙 특강을 실시한다. 전 태학관 민법강사인 이창근 변호사가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학원관

401호에서 진행하며, 23일은 학원관 420호에서 진행된다. 접수는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계산고시학사 2층 조교실에서 받는다.

한편 수강료는 계산고시학사 사법시험반인 경우 1만원, 본교생인 경우는 2만원이다.

# 원총 가을학술제 세미나팀 접수

## 오늘(15일)부터 24일까지 ... 소정의 연구비 지원

대학원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문학 석사과정)는 오늘부터 24일까지 가을학술제에 참가할 세미나팀을 접수받는다.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5명 이상의 대학원생 또는 수료생라면 신청가능하며, 발표, 전시회, 공연 등의 연구성과를 제출계획을 포함해 구체적인 연구계획서를 대학원

총학생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팀이 많은 경우, 심사를 통해 25개 팀을 선정하며 오는 11월 하계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원총학생회의 관계자는 "수준높은 작품을 기대한다"며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공포학번 농구실력 뽐내봅시다”

## 새내기 농구대잔치 오늘부터 31일 까지

총학생회(회장=구자용·야간영문4)가 해오름주간을 맞아 오늘(15일)부터 31일까지 '2004 새내기 농구대잔치'를 진행한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한 학과당 한 팀이 8명의 선수와 응원단 5명이 함께 출전한다.

총 27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만해광장에서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부전승제가 도입된다.

지난 12일 조 추첨 결과 부전승으로 올라온 일문과와 중문과, 체교과와 반도체학과가 겨루게 됐으며 오는 16일 오후 4시 연극영상 학과와 국제통상학과가 첫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최종 결승전은 오는 31일에 진행되며 우승팀에게는 상품으로 냉장고가 전달된다.

# 2004 전반기 군 장학생 모집

- 모집인원 : 2학년(000명)
  - 지원자격
    - 일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85. 7. 31 ~ '79. 8. 2일 출생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04. 4. 1 - 5. 15
  - 구비서류
    - 가. 지원서(사진첨부)/서약서 각 1부
    - 나. 수능성적(원접수) 1부
    - 다.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자. 고교 생활기록부 1부
    - 라.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마. 북부연장 지원서 1부
    - 바. 효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3부
  - 선발 방법 / 일정
- | 구 분         | 군장학생              |
|-------------|-------------------|
| 지원서 교부 / 접수 | '04. 4. 1 ~ 5. 15 |
| 체 력 검 정     | 5. 24 ~ 5. 29     |
| 신체검사·면접평가   | 5. 31 ~ 6. 12     |
| 인성검사/신원조회   | 7. 12 ~ 8. 31     |
- 최종 합격자 발표 : '04. 9. 1 ~ 9. 4
  - 특전
    - 학군 후보생 선발시 우대 (지원시 가점 부여)
    -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확보조비 지급 (연2회 등록금 실비 전액 지급)
    - 입관 / 입대시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 보직 활용
    - 국내의 민간대학원 석·박사 취득기회 부여(장기 복무시)
    - 우방국의 선진 군사교육을 받을수 있어 고급 지휘관으로 성장할수 있음
    - 기혼자 군속소 지원
    - 전국 유명호텔 및 콘도 이용 : 휴가, 출장시 이용가능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채용 우대)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8537)

## 제 112 학생 군사교육단

# 2005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 모집인원 : 0000명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07. 2월 졸업 예정자
    - 입관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85. 2. 28 ~ '79. 3. 2)
    - ※ 국가고시 합격자는 29세 이하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04. 3. 15 ~ 4. 10
  - 구비서류
    -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 나. 수능성적(원접수) 1부
    - 다.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라.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마. 효적등본/주민등록등본 각 3부. (부모사망시 제적등본 1부 추가)
  - 선발 방법 / 일정
- | 구 분         | 군장학생               |
|-------------|--------------------|
| 지원서 교부 / 접수 | '04. 3. 15 ~ 4. 10 |
| 체 력 검 정     | 4. 12 ~ 4. 17      |
| 신체검사·면접평가   | 4. 19 ~ 4. 30      |
| 인성검사/신원조회   | 5. 24 ~ 8. 14      |
- 최종 합격자 발표 : '04. 8. 16 ~ 8. 21
  -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입관
    - 국내의 민간 대학원 국비 취학가능 (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 (장기 지원자)
    - 군 복무간 복지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 제 112 학생 군사교육단

# 학생상담센터 이용 안내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심리검사 : 다면적인성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 Strong 진로탐색검사, 적성탐색검사, 학과와 직업선택을 위한 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를 수시로 실시합니다(무료). 심리검사 이후 해석은 물론 여러분의 성격, 진로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개인상담 : 전문상담원과 상담센터 관계 교수님이 학업, 성격, 대인관계, 직업 및 진로선택 등 대학생들 전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내방상담, 전화상담(Tel.2260-3931, 3930), E-mail 상담을 실시합니다.
  - 집단상담 :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갑니다.
  - 진로지도 : 개인의 적성 흥미 소질 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역시 고양과 합리적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해외유학안내 및 URP추천서 발급 : 해외유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상담을 실시 하며, 미국 방문시 비자발급을 위한 URP추천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관한법률'에 따른 고충상담 : 성희롱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 교양강좌개최 :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학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 강연을 실시합니다.
- \* 학생상담센터는 본관 2층에 있으며, 전화는 2260-3931, 3930입니다.

## 학생 상담 센터

## 정 정 공 고

지난호 동대신문(2004년 3월 8일자) 2면에 공고했던 '2004 회계년도 학교법인 동국학원 및 동국대학교 예산 공고' 중 학교비 자금예산서 자금수입 II.미시용전기이월자금 '1,400백만원'을 '2,000백만원'으로 정정합니다.

# 단과대 보궐선거 후보자 인터뷰

## “불교대 발전 위해 노력할 것”



김재동(불교4)·박동국(불교4).

- 이번 선거 모토인 '푸른 역사, 푸른 함성 속에서 피어나는 맑은 땅, 맑은 사람'의 의미는.

= '푸른 역사'는 본교 100여년 역사가 곧 불교대의 역사인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불교대의 자부심을 의미한다. 또한 '푸른 함성'은 대·내외적으로 불교대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다는 것을 뜻하며, '맑은 땅· 맑은 사람'은 미래에 불교대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다.

- 불교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불교대 4주체인 학교, 교수, 학생, 스님이 불교계 안팎의 인사를 만나 불교대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 또한 오는 5월에 있을 연등제 및 불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 그리고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 불교대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 우선 학부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선배책임제'를 실시할 것이다. 이것은 후배가 전공을 선택할 때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선배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불교대 학우의 취업을 위한 불교심리, 불교경제 등의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참여학생회’로 활기찬 이과대 만들 것”

정 이학근(화3)·부 객진영(수3).

- '이직 우린 젊기에'라는 선거 모토가 의미하는 바는.

= 극심한 취업난으로 학생들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도 처져있다. '이직 우린 젊다. 그래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힘을 내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언제나 생기 넘치는 활기찬 이과대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 활기찬 이과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 무엇보다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과대 학생회 카페를 만들어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건의함을 설치해

단과대 및 총학생회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2일 마감된 결과 총 8개 단위 중 4개 단위에서 후보자가 출마했다.

이에 각 단위 입후보자들을 만나 선거공약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학생들이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각 학과별 대항 체육대회와 이과대만의 작은 축제도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 취업에는 높은 토익점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토익 초청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구인광고나 취업 관련 정보도 이과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과대 내 소모임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학과와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본사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진이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과대 입후보자와 독자들의 양해 바랍니다.

## “다양한 사업으로 학생 참여 이끌 것”



이진영(영화4).

과는 달리 소수의 학생회 임원들만이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래서 학생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학생으로부터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 예술대 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 오랜 기간의 휴학을 마치고 복학한 후 바라보게 된 학생회는 예전과 사뭇 달랐다. 많은 학생들과 함께했던 이전

우선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계획하고 실행하겠다. 또한 온라인이 활성화된 만큼 사소한 이야기부터 정세이야기까지 '게시판 카페'를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다.

- 그 밖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 예술대만의 색깔을 가진 캐릭터를 제작해, 이를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캐릭터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여기서 모아진 수익금을 보육시설에 기증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 체계적인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의 교양을 증진시키고, 집회참여나 민중연대 사업과 같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곳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황주상 기자 hjo228@dongguk.edu

## “정산대 학생회 기반 닦는데 주력할 것”



김영훈(컴공3)·김현정(멀티공3).

- 정산대 학생회장으로 임후보하게 된 이유.

= 학생회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학생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전 학생회에서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시키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산대는 공과대에서 분리 된지 몇 년 되지 않아 학생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 선거에 당선 되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학생회 기반을 닦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현재 정산대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학생선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산업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 그리고 컴퓨터멀티미디어 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렇게 신입생 선발이 매년 바뀌고 있어 학생들이 과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 선후배 관계까지도 소원해 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신규 동아리 신청 19일까지

### 동아리연합회에서 10일부터 신청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신규 동아리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회원이 △3개 단과대 △5개 학과 △1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면 가능하다.

신청을 한 동아리는 신규 동

아리 1년, 준 동아리 4년을 거쳐 정식 동아리도 인정받는다. 정식 동아리는 지원금과 공간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리연합회 이동철(독문4)회장은 “신규 동아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동아리 활성화를 기대했다.

## 역경원 '열반경' 출간 부처의 최후설법 2권

역경원(원장=김성구)은 부처의 최후 설법인 '열반경' 전 2권을 지난 10일 출간했다.

이 책은 본교 역경원 원장을 역임한 이운허 스님이 옮긴 것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처의 불명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 대한생명 채용설명회 개최

### 오는 17일 다항관에서 ... 기업홍보, 질의응답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채용 설명회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다항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생명보험 인사 관계자가 진행하며 기업홍보를 비롯해 취업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또한 채용상담카드 작성 후

채용과 관련하여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모집분야는 영업관리와 일반 관리이다.

응시자격은 △2004년 8월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군필 또는 군면제자 △해외 여행에 걸려 사유가 없는 자이다.

## 사설

### ‘참여여건’ 우리가 만들자

본교를 비롯한 대학가 곳곳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각 대학들은 일찍이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해 부재자투표소설치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교 역시 지난주부터 학부와 대학원학생회가 공동으로 부재자투표 신청접수에 한창이다.

이는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대학생의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즉,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당수 '지방 유학생'들이 투표하기 위해 귀향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지 않고서 대학생 투표를 상응을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무관심 외에도 투표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총선이 중간고사시기에 치러져 대부분 학생들은 '권리행사'보다 '학점관리'에 몰두할 것이 분명한 만큼 번거롭게 관할 투표소에 가 기보다 학내에서 투표하는 것이 수월함은 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만20세 이상의 재학생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두지 않으면서 본교가 속한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에도 엄격한 선관위의 부재자 자격요건은 부재자투표 신청이 700여명에 그쳤던 원인 중 하나였다. 물론 이번 선거의 경우 대학원학생회와 협력하는 만큼 지난 대선 때보다 신청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뒤따를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학 총장의 학내 투표소설치 요청을 제안한다. 2천명의 신청을 받지 않고서도 기관의 장으로 해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관 내에 투표소를 설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학내구 선원들의 정치참여 확대가 궁극적으로 학교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

갈수록 투표율이 하락하는 상황, 더 이상 방치할 수만은 없다. 참여 '의식'만을 높일 뿐 아니라 편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우리가 만들어 갈 때다.

## 동국만평

장미애 substory@hanmail.net

### 新시원야방성대곡 - 2004. 3. 12 -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6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김주환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김준철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류병성		
편집장	최성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제 21대 이사장 현해스님 약력

△학력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 일본 고마자와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경력
· 중앙승가대학 부학장
· 월정사 성보박물관 관장
· 월정사 회주

“교육환경 개선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해 나갈 것”

- 취임 소감은.

= 예상하지 못한 선출이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나에게 맡긴 직위인 만큼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 특별한 포부나 계획,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업무나 직위든지 간에 사적 감정과 욕심을 개입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임할 것을 약속한다.

- 재·종단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조계종 각 사찰의 재산을 출자해 본교를 설립한 만큼 재단·종단과 학교를 독립적으로 여길 수 없다. 또 지난 62년 동국대 재단부실 문제가 지적됐을 때 종단에서 힘을 합쳐 각 사찰 부동산의 5분의 1 이상을 기부했고, 불교 병원 건립에도 400억 이상 기부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면 재단과 종단이 협력해 학교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한편으로는 재단이사 선출부터 예산승인까지 종단이 학교운영의 핵심 사항을 쥐고 있는 만큼 학교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 재단전입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 약간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 재단에서 투자한 자산이나 전입금이 회계상의 잘못으로 학교수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재단전입금이 적은 것이 아니라 회계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취임 후 우선적으로 회계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이런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사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사회를 응집시키기 위한 방안은.

= ‘업’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기 마련이다. 다른 의견을 배척하기보다 존중하고 포용하며 하나로 응집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될 수 있으면 직접 이사들을 찾아가 상담하고 조언을 듣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한다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라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불교병원 개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 그동안 정관개정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개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지

난달 27일 난관 끝에 정관개정안을 승인했다. 아마도 다음해 3월 개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하나 최대한 이 시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협조하겠다.

- 본교 발전을 위한 구상이 있다면.

= 외부로 팽창하기보다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주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전 내가 재학중일 당시보다 학생수는 5배이상 늘어났지만 학교부지는 그대로이다. 정원은 계속 증가함에도 학교부지 확보보다 경주캠퍼스와 일산병원 건립 등 외부 팽창에 집중 투자해 강의실과 연구실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연구환경개선을 위한 내적 기반을 충실하게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내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교수와 직원의 경우 능력이나 성실성에 따라 처우를 달리 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동약로

뒤바뀐 주인



“고학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지금 호명하는 1학년 학생들은 다른 수업을 신청해 주세요”
“지금 다른 수업으로 바꾸면 시간표를 전체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되는데~”
사회과학대에 개설된 1학년 전공수업에서 1학년이 ‘퇴출’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강정정이후 130여명의 학생들이 물리자, 담당 교수가 수강생의 대다수가 3, 4학년이라는 이유로 1학년 학생들에게 다른 시간대의 강의를 들으라고 한 것이다.

문제의 강좌는 일주일에 한번 연강으로 진행되는 것과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는 것으로 2개 개설되었다.

연강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130여명의 학생이 신청한 반면 다른 수업은 40명정도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결국, 수강인원이 초과된 강좌의 1학년 학생 대다수는 수업을 포기하거나 시간표 전체를 새롭게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각 학과와 교수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진 전공과목에 대한 인원제한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법학과와 신문방송학과 등의 경우 일부 과목을 전공자 이외에는 수강할 수 없도록 하거나 인원제한을 하고 있고, 경영대의 경우 전 학과의 전공과목을 강의실 인원에 맞춰 수강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수업이 아르바이트 시간과 겹쳐 수강을 포기했다” “다른 시간대의 같은 강좌로 옮기면서 시간표 전체를 바꿨다” “수강 포기로 전공과목 이수에 차질이 생겼다”

수강신청이 부득이하게 변경된 경우 당사자에게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이 불편함을 한번 감수하면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수강문제는 학생들에게는 큰일이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논단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

우리들의 통일 새터

나뭇가지에 새 순이 돋는 것 하나만으로도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과 북의 대학생들이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 통일 새내기 새로 배움터’(금강산통일새터)를 진행했다.

남북의 대학생들이 만나 공동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그 자체로 현재 통일(운동)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또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새삼 가늠할 수 있다.

금강산 새터가 가지는 의미

첫째, 이번 ‘금강산통일새터’는 분단 이래 남북 대학생들간의 ‘최초’이자 ‘대규모’ 만남이다. 분단상황에서 ‘최초’라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처음이 있어야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 과정이 있기 마련이다. 또한 ‘최초’에 못지않게 ‘대규모’도 중요하다.

이번 ‘금강산통일새터’는 남측 53개 대학에 약 7백명, 북측 1백명으로 모두 8백명이 참여했다. 이는 그간 민간 차원의 남·북·해외공동행사가 1천명 내외인 것과 비교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둘째, 남북 ‘일반 대학생’들 간의 공동행사라는 점이다. 전체 통일운동 흐름에서 일반 대학생

들이 단순한 금강산관광이 아니라 남북공동행사를 갖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간 통일운동이 ‘대표자’를 중심으로했는데 이번에는 ‘일반’ 학생들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우리 통일운동이 ‘대중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된다.

특히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가 500명이나 참가했는데, 이처럼 새내기가 첫 대학활동을 금강산에서 그것도 북측 학생과의 만남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셋째, 이번 ‘금강산통일새터’ 행사는 토론, 예술공연, 공동등반, 만찬 등의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됐는데, 이들 각 행사마다 특히 일관되게

‘민족’과 ‘6.15남북공동선언’이 강조된 점이 매우 중요하다. ‘개막 인사’에서 남측과 북측의 대표는 각각 6.15공동선언의 의의와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 얘기했다.

남·북이 하나되는 자리

이어 ‘주제발표’에서 북측은 ‘민족의 우수성과 6.15공동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으며, 남측은 C-코리아(Corea) 국호표기를 주제로 발제하며 “동족적 자존심을 갖고 남북이 하나로 단합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예술공연인 ‘우리민족 자랑대회’가 열렸

는데, 이 예술공연에서 남북은 모두 민족성과 통일을 주제로 청년의 기백을 표현한 작품을 공연했고, 공연후 출연자 전원이 “우리는 하나”를 합창했다.

이처럼 남과 북이 각 행사마다 일관되게 ‘민족’과 ‘6.15공동선언’을 내세운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하고 세계가 지지한 통일의 이정표이며, 또한 앞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념’이나 ‘제도’ 통일이 아닌 ‘민족’ 통일이라고 볼 때, ‘일반 대학생’들이 6.15선언과 민족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참여하는 통일

그런데 이번 ‘금강산통일새터’ 행사는 이처럼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으로 많은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같은 대중적 차원의 행사가 끊어지지 않게 정례화되어야 하고 또 차원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새내기를 비롯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민족화해에 앞장 설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작은 일이 남북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통일의 물꼬를 트기 마련인 것이다.

청계천 문화유적을 알아본다

# 매몰됐던 600년 건축기술이 눈앞에

청계천 복원공사 현장에서 모전교 양쪽의 호안석축, 오간수문의 흙에 기초석, 수표교 주변의 호안석축 등 여러 문화재와 유적들이 출토돼 학계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는 조선시대 건축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자칫 영원히 묻혀 버릴 뻔 했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과 유적들의 발견에 역사학계는 안도와 놀라움을 동시에 표현했다. 이번에 발견된 유적들은 청계천 복원구간에 있던 다리나 수문으로 일제강점기와 1960년대 청계천 복개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속에 매몰되었던 것들이다.

이와 관련해 배기동 한양대 박물관장은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규모의 다리가 남아있었다는 것은 놀랍고도 반가운 일이다. 다리는 시수에 관한 조선시대의 도시계획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고 말했다.



▲ 광통교 남쪽 교대 하단 부재

먼저 옛 모전교 터에서 발굴된 호안석축은 조선 후기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구조물이다.

무교동 사거리에서 청계천을 따라 17.1m 폭을 두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으며 좌안석축과 우안석축을 합해 길이가 100m 정도나 된다. 호안석축은 1773년 영조 때 청계천 주변에 쌓은 흙이 쓸려 내려가 하천이 범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돌로 쌓은 축대로 조선시대 건축된 석축의 구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광교 4거리 일대에서 발견된 광통교는 조선시대 남대문로에서 청계천을 건너기 위해 만들어졌다. 광통교라는 이름은 지금의 중구 남대문로 1가 조흥은행의 옛 지명인 광통방에 위치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길이보다는 폭이 넓은 다리였다.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어진 토교였지만, 1411년 8월 큰 비로 익사자가 발생하자 태종은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석물을 사용한 석교로 만들었다고 한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태종이 신덕왕후(태종의 계비) 강씨를 미워해 강씨 무덤인 정릉의 석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이번 발굴을 통해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받침석은 직경 120cm 정도의 방형 석재를 놓았으며, 주변에는 장대석과 방형의 석재 등으로 바닥면을 마련하였다.

또한 광통교의 교대와 바닥석 아래에서 발견된 지반을 다지기 위한 지정발목은 당시 토목 기술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오간수문지는 청계 6가 4거리 일대에서 발견됐는데, 이는 조선시대 도성의 물을 배수

하는 오간수문의 터의 수문 기초석이다.

조선시대 때 오간수문은 내사산의 물줄기가 다모여 도성을 빠져 나갈 때 통과하는 곳이였다. 오간수문을 빠져 나간 청계천 물은 영동교를 지나 중랑천 물을 받아들여 한강으로 흘러든다.

기록을 보면 태종 때까지 수구문은 북쪽이 삼간수문이었고, 남쪽이 이간수문이었다. 세종 때 개천공사를 통해 북쪽이 삼간수문이 되었고, 남쪽이 삼간수문이 되었는데, 오간수문에 대한 기록은 명종 15년 11월 24일 임격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이번 발굴을 통해 기초석 아래에 두께 10cm 정도의 나무 기둥이 박힌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는 조선시대 다리 건축 기법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자료다. 다리를 만들기 전 개천바닥에 나무를 세워 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문화재연구원 김현정 씨는 "원래 나무는 물 속에 있으면 썩지 않아 돌보다 더 튼튼하다. 몇 백 년 전 조선 사람들이 이를 알고 이용했음을 보여주는 오간수문 터는 소중한 유적이다"라고 말했다.



▲ 오간 수문터에서 발견된 수문 기초석

이러한 유적과 문화재들은 청계천 전체 복원 구간 5.8km 가운데 극히 일부인 6곳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발굴지역 확대의 필요성을 문화재계와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 복원 문제에 관해, 청계천 복원 공사 계획에 의해 일부 문화재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서울시와 발굴된 장소 그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문화재계와 시민단체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랜만에 발견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크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gu.edu

## 이 경섭 사학과 강사의 사상이 이야기



### 나치에 대항한 레지스탕스 역사학자 마르크 블로크 (1886-1944)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 1886~1944)는 20세기 역사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아날학파의 제1세대 학자이자, 나치 독일의 점령 아래에 놓였던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 레지스탕스로 활동한 실천적인 지식인이었다.

아날학파는 블로크가 뒤시앙 페브르와 함께 창간한 '사회경제사연보'(Annales d'histoire conomique et sociale)에서 유래하는데, 정치보다는 사회, 개인보다는 집단, 연대(年代)보다는 구조를 역사 인식의 기본틀로 하여 전통적 역사학에 지리학·사회학·경제학·인류학 등을 종합시키는 새로운 인식 체계를 구축한다.

이같은 아날학파의 일원으로 블로크의 업적은 '프랑스 농촌사의 기본성격'(1931), '봉건사회'(1939~1940)라는 걸작을 통하여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블로크는 '역사를 위한 변명'(1949년 출간), '이상한 패배, 1940년의 증언'(1946년 출간)을 통하여 역사의 본질과 관련한 인식 문제를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위의 두 저서는 '도대체 역사란 무엇에 쓰는 것인지'와 '역사가 우리를 배반했다고 생각해야 할까'라는 다소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역사학자이자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블로크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로크는 역사가 본질적으로 변화의 학문이자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역사는 그 오랜 시간의 흐름에서 반복이 일어나기도 하며, 미래를 예견하는 것이 불투명한 경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블로크는 "역사는 내일은 어떤

방향에서 어제와 다를 것인가를 예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년의 블로크는 독일의 침략과 지배라는 프랑스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노력했으며,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로 독일군에게 처형당한 그의 죽음은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 저항한 지식인의 뜨거운 상징이 되었다.

아직까지 식민지와 근대의 기역과 역사의 투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성장하고 이제 역사연구자의 길로 들어선 초학의 필자에게 블로크의 인간과 그 전체로서 역사를 바라보고자 했던 인식과 실천성은 제국(帝國) 프랑스 민족주의로의 회귀라는 일각의 평가도 존재하지만 단재 신채호의 그것과 함께 내면의 울림으로 자리하고 있다. 며칠 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통령탄핵안을 가결시키고 난 후, 국회라는 기이한 집단의 장은 "대한민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존정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을 접하고 난 후 '역사가 우리를 배반했다고 생각해야 할까'라는 블로크 만년의 의문을 실로 오랜만에 현실 속에서 떠올리고야 말았다. 이것은 필자만의 우울한 상상일까?

학술 기고물 받습니다. 원고지 8~10매 분량의 간추린 논문이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글을 기다립니다. 지역이나 분야는 제한이 없고 채택된 문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학술단신

### 옛 발해 지역, 고구려 문화 간직한 유물 발굴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역 역사·고고민속학 연구소가 연해주 지역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유적지와 유물을 발굴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와 연관 깊은 발굴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은 굴뚝, 구들장과 온돌의 흔적인데 특히 온돌은 고구려만의 특색있는 문화로 고구려와 발해의 연관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발해인이 먹던 조·수수 등의 곡물과 생선 뼈 등도 발견돼 식생활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 서유구 행정일기 '화영일록' 출간

경기도 박물관(관장 이종선)이 조선 헌종 때 수원유수에 임명된 서유구가 쓴 행정일기를 출간했다.

'화영일록'이라는 제목의 이 문헌은 △수원부 일대 농업 및 농업 실상 파악 △농업에 가장 중요한 가축인 소의 무단 도살 성형 △양반층의 세금납부 거부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소나무 벌채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라는 명령의 내용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학술동사리 탐방 기획 - ② 민족사연구회

# “우리를 찾기 위해 역사를 배워요”

'숨은 그림 찾기'에서 숨겨진 무언가를 찾았을 때의 희열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라면 그 기분은 어떨까.

해방 이후, 왜곡되고 감춰진 역사를 재해석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민족사연구회(회장=박철우·경제2, 이하 민사) 회원들이다.

민사는 지난 1986년 한국의 암울한 현대사를 새롭게 짚어 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민족사 연구회의 한 학생은 "당시만 해도 역사자료들을 압수당하는 일이 많았으나 지금까지 500여권의 귀중한 역사 서적을 보관하고 있죠."라고 말했다.

민사는 이러한 서적들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사 중 한 주제를 정해 매주 수요일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비관적인 시각으로 왜곡된 역사를 재조명함으로써 과거의 모순을 오늘날의 모순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기세미나의 발제문은 매주 민사 카페에 올려 다른 학생들과 역사적 진실을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매년 11월에는 학내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해 발제내용을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할 뿐 아니라 이화여대 학술동아리 '민맥' 등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학습하고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실천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한 가지 사실이라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민사는 일반 학생들의 생각을 듣는 자리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민사는 앞으로도 독재자와 언론 등에 의해 가려졌던 현대 한국사의 단면을 계속 알려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러한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역사사랑, 나아가 나라사랑의 한 길은 활짝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설윤진 기자 dswls@dgu.edu

## 건학100주년기념 교사(校史) 자료 수집 안내

본회에서는 건학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06년 명진학교 개교당시부터 현재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校史)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목 적 :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불전, 해화진문,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전시함으로써 본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결집하는 동국인의 긍지를 고취시켜 일류대국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함.
2. 수집 기간 : 2004년 1월 - 2006년 4월 까지
3. 수집 장소 : 동국대학교 박물관
4. 교사자료 수집내용
  - 1) 건학에 기여한 선각자 및 사찰에 관한 자료(1906년 전후 자료)
    - 가. 선각자 : 이보담, 김철해, 김우문, 박보봉, 김석운, 홍필조, 김보문, 김포용, 김현암(9인)
    - 나. 사 찰 : ▶ 대법산 : 원흥사(서울)
      - ▶ 중법산 : 봉은사(광주) 봉선사(양주), 용주사(수원), 마곡사(광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해진), 통도사(장산), 동화사(대구), 월정사(강릉), 유점사(고성), 석왕사(안변), 귀주사(함흥), 보현사(영변), 신광사(해주)
  - 2) 문헌자료
    - 가. 서적 및 정기간행물 : 각 기관에서 발행한 서적 및 간행물
    - 나. 문서, 문건 : 공문서, 입부일지, 회의록, 대자보, 학생활동문건 등
    - 다. 각종 증서류 : 학위증, 학생증, 성적증명서, 교직원신분증 등
    - 라. 기념인쇄 및 홍보물 : 다이어리, 달력, 카드, 팸플렛, 포스트, 페넌트 등
  - 3) 기념품 : 교표, 교기, 우승컵,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 4) 복식자료 : 교복, 교모, 체육복, 교련복, 학군단복, 실습복, 행사티셔츠 등
  - 5) 사진자료 :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 6)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 휘호, 서예, 유품 등
  - 7) 집기 및 비품 자료 : 각종 인장, 현판 등

\* 문의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02)2260-3120, 박물관 (02)2260-3462

##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

## 4월 사법시험반 장학생 선발시험

1. 대상 :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전동국인(재학생, 졸업생)
2. 일시 : 2004년 3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12시 20분
3. 장소 : 정보문화관 401, 402
4. 시험내용

학년(선발인원)	시험과목	시험범위
1학년(6명)	민 법	총칙
	영 어	토익TOC 문제유
2학년(6명)	헌 법	헌법총론~기본권전까지
	민 법	총칙
3·4학년(49명)	헌 법	헌법총론~기본권전까지
	형 법	형법총론
/졸업생(10명)	민 법	총칙

5. 장학금 : 성적순으로 차등지급을 원칙으로 함(세부규명 추후결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계산고시학사 5월 입설을 원칙으로 하며 사법시험반에서 제공하는 각종혜택의 우선권이 주어짐.
6. 응시료 : 금 일천원(단, 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시험종료 후 환불받음-응시료 필히 지참)
7. 원서접수 : 계산고시학사 2층 조교실, 2004년 3월 22일(월)~25일(목), 사건1매, 통장계좌번호
8. 주의사항 : 시험과 관련된 부정행위 적발시 추후 시험응시기회 박탈됨.

● 기타 문의사항 2260-8685

## 고시지도위원회 사법시험반

## 민법총칙특강 공고

1. 시 간 : 오후 6:30 ~ 10:30
2. 장 소 : J401(17일(水),18일(木),19일(金), 22일(月), 24일(水)) J410(23일(火))
3. 강 사 : 이창근 변호사(전 태학관 민법강사)
4. 수강료 : 계산고시학사내 사법시험반 입설자 1만원, 본교생 2만원, 타교생 3만원
5. 교 재 : 김준호 민법강의(총칙부분)
6. 신청장소 : 계산고시학사 2층 조교실(문의전화 2260-8685)
7. 신청마감 : 3월 17일(수) 오후 5시까지 마감
9. 기 타 : 3월 27일에 실시하는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에 본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민법총칙 문제를 출제할 예정임.
10. 이후 특강일정
  - (1) 4월 첫째주 : 물권법 특강
  - (2) 5월 첫째주 : 채권총론 특강
  - (3) 6월 첫째주 : 채권각론 특강
  - (4) 7~8월 토익특강 예정

### \* 주의사항

모든 고시장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0이상, 17학점 이상 취득한 자(졸업학점이 120인 경우는 15학점, 7학기 이수자 12학점 이상)만 가능함.

## 고시지도위원회 사법시험반

수상한 과학

전방욱 저  
꽃빛 출판 펴냄



# 생명공학, '반성적인' 시선으로 접근하자

## 찬성과 반대 양측의 대등한 논쟁 필요



생명공학은 그 옹호자와 비판자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다. 생명공학의 옹호자들은 생명공학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고, 굶주리는 제3세계의 빈민들을 먹여살리고,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무병장수의 미래를 가져올 '꿈의 기술'이라고 믿는다. 반면 생명공학의 비판자들은 생명공학의 배후에 다국적 거대 생명공학 기업들의 상업적 동기가 도사리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지금껏 생명공학이 지닌 가능성은 과대포장된 반면 그 속에 내재한 잠재적 위험은 의도적으로 축소되어 왔다고 주

장한다. 생명공학을 둘러싼 이런 대립구도는 양측이 대등한 논쟁이라기보다는 그간 매우 경시된 모양새를 띠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언론 등 대중매체에서는 생명공학의 무한한 잠재력을 치켜세우면서 그것이 내포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위험은 애써 외면함으로써 보도의 균형감을 상실해 왔다.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에서는 생명공학 비판 진영에서 과학자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생명공학의 옹호자들은 주로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과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비판자들은 주로 생명윤리 등을 전공하는 인문사회학자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불균형은 생명공학 관련 논쟁이 (실제로는 많은 부분 '과학적' 논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문화(two cultures)' 대립의 연장인 양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폐쇄적인 이공계 문화 탓에 대한전문가(counter-expert)의 성장이 극히 미약하고, 이 때문에 생명공학을 둘러싼 논쟁 구도가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한국의 현실에서 전방욱 교수의 책 '수상

한 과학'은 가뭄 속의 단비같은 느낌을 준다. 이 책은 한국에서 생명공학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해 생명공학과 관련된 최근의 사건들과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리뷰한 최초의 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저자는 유전자조작 식품과 인간복제, 이종간 장기이식 등의 사안들에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찾아다니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쉽게 풀어 쓰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피상적인 찬반 논쟁 소개를 훨씬 뛰어넘어 한국사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쟁

을 위한 지양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저자의 입장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과학의 상업화와 이로 인한 과학 활동의 왜곡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좀더 '반성적인' 과학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저자는 생명공학을 둘러싼 대립구도에 불모로 잡혀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이 뒤섞인 채 생명공학을 이용한 여러 산물들이 사회로 확산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일반 시민들이 생명공학의 발전 과정에서 마땅히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단지 한 사람의 대항전문가가 아닌, 한국사회에서 극히 찾아보기 힘든 또 한 사람의 '시민과학자(citizen scientist)'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어 내심 반갑다. 전방욱 교수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

김명진  
본교 '기술과 사회' 강사

### 소나기

동성결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건 누군가가 간섭할 일이 아닌 듯...  
△결혼의 의미는? 사랑하는 이들의 결합,  
아니면 인류생산의 방법?  
△사랑하는 사람(人)은 사랑해야 한다.  
△축복해 줍시다. 잘 살도록...  
△자연을 거슬러서 좋게 끝나?  
△자신의 자유다.  
자기가 좋다는데 어이하여 막는 것인가?  
△성별, 사랑 앞에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All in!  
△인구가 안 늘어나요~  
△요즘엔 감싸끼리 결혼할 수 있지 않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듯~  
△용기있는 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난 이성이 더 좋던데...  
△동성오빠! 나랑 결혼해줘요~  
△당장의 결혼식보다 살아가면서 부딪힐  
따가운 시선이 열려스럽다.  
△순수한 맘으로 축하해 주면 안되나?  
△모르는 사람이면 이해하지만,  
가까운 사람이라면 말리고 싶다.  
△남자끼리는 찬성이지만 여자끼리는 반대다.

## 건전한 술문화 습득으로 알차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새 학년 새 학기의 희망과 신입생들의 풋풋한 활력이 캠퍼스 곳곳에 배어나는 3월이다. 이맘때쯤이면 강의실 밖에서도 각종 형태의 신입생 환영회가 치러진다. 대학가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신입생 환영회는 첫 만남의 어색함을 지우고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좋은 기회이자 대학생활 추억거리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지만, 종종 의도와 달리 지나친 과음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이나 심지어 신입생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느 일간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신입생 환영회 때 과음으로 사망한 신입생이 10명이 넘는다."고 한다. 금년만 해도 벌써 언론에 보도된 큰 사고가 3건이 넘고 그 중 며칠 전 있었던 경기 화성 소재 H대 신입생 환영회에서의 과음으로 인한 신입생 사망 소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던져주었다.

연간 소 소비량 세계 1위(순도100% 알코올 기준 국민 1인당 약 10l), 40대 남성 간 질환 사망률 세계 1위. 물론, 한국의 자랑(?)거리. 이 정도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1주일에 1인당 평균 소주 2병"을 마시는 셈이라고 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은 술을 마실 때 "술잔을 돌리며(74%), 단시간에 많이(64%), 폭탄주(쉬어마시기)나 완산(한번에 마시기)과 같은 국적 불명의 무리한 음주를 결별하며(57%), 원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여 과음(77%)"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술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과음, 즉 많이 마시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일부 어른들의 그릇된 음주 문화에 기인한 '대학생 과음 문화'는 이제 매우 광범위하고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술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잘 배워야 한다.

객기와 만물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대학 1학년. 그러나 술 따위에 저당 잡히기엔 너무나 아깝고 소중한 시간이다. 건전한 술 문화의 습득을 통해 부디 알차고 행복한 대학생활 이루시기 바란다.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은 난세이다. 아예 이참에 절주를 위한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은 어떨지.

백승규  
학생복지실 계장

## 기본질서, 신세대들이 먼저 지킨다! 칭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길

과거에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 종종 이런 말부터 하곤 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하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다르다. 예전의 모 TV CF처럼 지킬 건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에 앞장서며 옛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경우를 잘 볼 수가 있다.

과거의 젊은이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서 자리에 앉으면 먼저 눈감는 일부터 하곤 했다. 노약자들이 있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려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더 심한 경우는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노약자 자리가 비어도 앉지 않는 것은 이제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이제 우측은 서서 가는 사람, 좌측은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규칙이 비교적 잘 자리를 잡고 있다. 그 규칙을 정립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살펴보면 어른들 보다 젊은 이들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아직도 젊은이들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제는 일상 생활의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킬 뿐 아니라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며 실천하는 신세대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칭찬과 사랑으로 봐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앞으로 계속 사회 질서의 초석을 잘 다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손혜진(사과대 사회3)

## 동아리는 새로운 경험의 장 적극적인 활동으로 보람 느껴보길

길었던 겨울방학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시작되었다. 동아리는 다시 새로운 얼굴들이 04학번과 복학생들의 얼굴들이 더해져서 겨우내 조용했던 캠퍼스의 모습이 봄 날씨처럼 활기차고 아름다워 진 것 같다. 처음 대학생활에 접어든 풋풋한 04 새내기들의 모습을 보며 1년 전 학교 여기저기를 친구들과 신기해하며 돌아다니던 나의 모습을 회상한다. 그리고 대학 1년 생활동안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고등학교와 많이 다른 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려웠고 공강 시간 마다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아마 올해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도 분명히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일년 먼저 학교생활을 해본 나로

서는 동아리활동을 해볼 것을 권해주고 싶다. 나도 처음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못하는 술도 많이 마셔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재미가 학교생활에 재미를 붙여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할 일 없고 심심한 공강 시간에도 동아리 방에 가면 동아리 친구들과 선배들과 재미있게 보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귄 속에서 학교 다니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단과대에서 모인 학생들이라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속한 동아리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서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할 일은 각자 하면서도 동아리 활동을

잘 한다면 대학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두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자기가 하는 만큼 친구들을 사귄 수 있고 보람을 느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했다. 지금 막 학교생활을 시작한 후배들에게 꼭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동아리든 소모임이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하라고 말하고 싶다.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대학생활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보람(사과대2)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 또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 많은 정보 알리기 위한 흔적 보여 심층분석·방향제시 없어 아쉬워

새 학기를 맞이해 동대신문도 새단장을 했다. 특히 이번 신문에서는 보도면의 증가와 동아계사판, 정보마당 등의 활성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였다. 하지만 예전과 비교해 이렇다할 파격적인 편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신문의 시원한 편집과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주기 위한 다양한 실험은 동대신문이 독자들에게 한층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될 텐데 말이다. 어쨌든 다양한 정보의 획득은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일련의 기능에 치우쳐 하단광고와 보도면 단신기사가 중복된 지면낭비, '특성화 사업'이나 '성추행문제 논란'과 같은 기사마저 계획의 나열이나 경과보고에 그쳐 심층적인 분석과 방향제시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해설면의 '전과제도 분석' 기사는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각도와 넓은 시야에서의 분석이 필요했다고 본다. 한편, 제1381호 동대신문에서 주제기획한 '100여년 동아'의 컬러 사진들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평소엔 무심히 지나치던 곳의 옛모습을 떠올려 보니 풍류의 살아있는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우리학교에 얽힌 숨은 이야기는 재미를 더했다. 또한 4.15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젊은 유권자들의 반란'과 '청년당원들의 인터뷰'와 같은 선거관련 기사는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계속해서 동아의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를 던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동대신문의 깊은 고민이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김은선 (통계03졸)



## 동악광장

축하합니다

△相人 합격 축하해!  
△정지혁! 입대 3주년 축하축하!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L.A.E  
△의태야, 생일 축하해! -재영  
△안경숙!! 생일을 축하해. 이상현도 -경영대 00  
△조희상, 토의 950점 축하!  
△행정 사과대 01 김성아양, 생일 축하해~ -행정학과 학생회 일동  
△3월 15일은 정병 생일!  
△영지야! 생일축하해!  
△축 사과대 풍물대 조이 탄생!  
△하하냐! 결혼식 축하해~ 꼭 참석 할게!

열심히 합니다

△동국문화회 새내기 모집 열심히 합시다!  
△이제 시작된 1학기 행정학우 여러 분 열심히 해 봅시다~ -행정학과 학생회

△국어국문학과 제 18대 학생회 파이팅!  
△45th. 뽀가 안풀리는 이번주, 잘피 겠지. 힘내자!  
△민아! 우리 맘먹은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뽀살 열심히 빼자!  
△TOEIC 950을 향해~  
△일일어 시험, 만점 받아야지!  
△영어학원 빠지지 말고 꼭 다니자.  
△김김연우 컨서트, 화이팅이예요!  
△유희열~ 힘내세요.  
△세진아! 힘내서 몽중인 짱 열심히 해. 후배 많이 받아라~  
△뽀뽀생진 43기들! 학교생활 열심히 하세요~ -ppuzic

수고하셨습니다

△개강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행정학과 학생회 임원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학과 학생회장  
△은선이형, 막노동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아, 이번주 정말 수고했고 담주에도 다시한번 수고하자!

△PC다라 수고했다. -me  
△잡일 도와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기수 밀  
△뽀~ 내 부탁 들어주느라 수고했어!!

그리고 ...

△동국법대 야구부 여자 매니저 모집! 자세한 사항 법대계시판 lawbreakers.wo.to 참조  
△미국에 있는 우리사촌언니, 조카보러 금방갈게~  
△감! 너 계속 그런식으로 살아봐!  
△슬기형, 제발 만나요. 기다립니다. -sexy 황  
△보라형~ 저 헬스 가르켜줘요(팔뚝 위주)  
△수업 너무 지겨워요!  
△진주야~ 몸조리 잘해.  
△지원이! 머리 자른거 잘 어울려.  
△The film 앨범 좋아요.  
△뽀~ 과외비 받았으면 한 톨 기대 할게.  
△태우오빠! 내 생일날 군대가다니 진짜 유감이다. 잘다녀와~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3/15)	소고기우육 (1500) 치킨볶음밥 (1500) 나물비빔밥 (1500)	참치짜개 (1500) 낙지제육볶음 (1800) 갈비경단백반 (1500)	된장짜개 (3000) 황태뽀볶기 (3200) 버섯불고기 (3500)
화 (3/16)	꼬치어묵우동 (1500) 꾸꾸미제육볶음 (1800) 너비아니백반 (1500)	쇠고기국밥 (1500) 오징어가스 (1800) 두부김치 (1500)	된장짜개 (3000) 우거지갈비탕 (3200) 삼치구이 (3200)
수 (3/17)	사골곰탕 (1500) 피자돈가스 (1500) 회덮밥 (1500)	떡만두국백반 (1500) 모듬볶음밥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된장짜개 (3000) 날치알살밥 (3200) 해물덮밥 (3500)
목 (3/18)	부대찌개 (1500) 불고기백반 (1800) 돈육뽀강정 (1500)	육개장 (1500) 닭갈비볶음 (1800) 스파게티 (1500)	된장짜개 (3000) 도기나탕 (3800) 삼겹살김치볶음 (3200)
금 (3/19)	콩나물국밥 (1500) 잡채밥 (1500) 오징어소면우침 (1500)	돈육김치짜개 (1300) 탕수육 (1500) 오징어덮밥 (1500)	된장짜개 (3000) 해물짜개 (3500) 카레라이스 (3000)

특별기고 - 특검법 1차 수사기간 연장, 왜 했는가

# 국민적 의혹 해소위해 발벗고 나서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지 50여일이 넘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4일 김진홍 특별검사는 다음달 5일로 끝나는 1차 수사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60여 일의 수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동안에 뒤를 했길래 아직도 수사할 것이 남아 있다는 걸까. 왜 수사를 한달 더 연장하려는 걸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이 미 수사의 90%가 끝이 났으며 더 이상 파해야 나올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검팀이 새롭게 제시한 내용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 낸 것이 유일하다.

그나마 불법자금인지 여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뒤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비리 의혹사건을 전담하던 이준범 특검보는 갑자기 '스트라이크 아웃과

홀론론'을 거론했다.

홀론을 치는 것만 성과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아내는 것도 성과라는 말인데, 설명인 즉 의혹 사건 수사를 통해 기존의 의혹을 사실로 밝혀내고 새로운 비리를 찾아내는 '홀론'도 중요하지만 의혹은 단지 의혹일 뿐이며 사실 무근임을 밝혀낸 즉 '스트라이크 아웃'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준범 특검보의 '스트라이크 아웃과 홀론'론이 거론된 뒤 이번 의혹사건 가운데 큰 물줄기인 '선언문 그룹 95억원 전달 녹취록'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결론이 특검팀으로부터 나왔다.

이어 청주시스나이트 클럽 사장 이원호씨가 노 캠프에 전달했다는 50억원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부산지역 건설업체로부터 300억원을 거했다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비리 의혹과 관련해 300억원도 실제없는 숫자라는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특검의 세 갈래 의혹이 모두 사실 무근으로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문제가 터져 나왔다. 세명의 특검보 가운데 한 명인 이우승 특검보가 중간사퇴를 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가 수사를 거부하고 교묘히 수사를 방해해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다며 특검팀을 뛰쳐나온 것이다.

이 특검보는 조사를 받던 참고인의 다리를 걸어 찬 이른바 폭력수사를 했고 파견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할 이 특검보의 증언이 있다. 115억원이라는 거액을 37회에 걸쳐 사기 대출해 준 농협담당자인 참고인이 자신은 몰랐다는 말만 녹음테이프처럼 반복했고 이를 수사하는 수사관은 기계적으로 받아 적으며 조서를 꾸렸다는 것이다.

문제점을 추궁해야할 수사관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참고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기만 했다는 것이고 이를 들던 이 특검보가 흥분을 참지 못한 것이다.

이 특검보의 말대로라면 수사관은 수사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자의 입에서 무슨 말이나 나와 주기만을 바라는 너무 안이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녹취록도 김도운 전 검사가 제공한 것인데 결국 아무런 혐의점이나 의구심 없이 이 녹취록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려 질 태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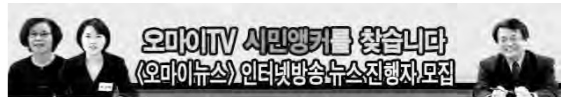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실제 없이 부풀려진 의혹만으로는 70명이 넘는 방대한 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한탄한다. 그리고 특검팀을 통과시킨 정치권이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단지 실제 없는 의혹임을 밝히는 것도 분명 중요한 수사성과일 것이다. 그리고 당리당락에 따라 의혹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검팀이 이런 모습 그대로 한달이라는 시간만을 채우려 한다면 분명 특검팀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말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특검팀을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

이상현  
사회과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보다 진솔한 시민의 목소리

## 오마이뉴스 시민앵커 프로그램

뉴스캐리타들의 뉴스연대 '오마이뉴스'의 인터넷 방송에서 올해 2월20일 '시민앵커뉴스'라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가 영상시대에 걸맞는 영상뉴스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실험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이다.

'시민앵커뉴스'는 시민기자가 앵커로 참여하여 매주 금요일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20여분간 방송하는 뉴스를 말한다.

아직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이미 세명의 시민앵커가 네티즌들에게 사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신선하다' 또 다른 측에서는 '아마추어티를 벗지 못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앵커와 기존 방송앵커의 차이점은 성별이나 연령, 외모 등이 주요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앵커는 그야말로 누구나 앵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앵커의 성역할을 용납하지 않는다.

젊은 미남 미녀일 필요가 없다. 얼굴에 분단장을 하듯 뉴스에는 포장을 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앵커뉴스에서는 보다 진솔하고 보다 감렬한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나 뉴스가 기사의 형태로 전달될 때와 영상으로 나갈 때는 큰 차이가 있다. 영상은 보다 전문적 기술력과 더 많은 번거로움을 요구할만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시민앵커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앵커의 목소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련 영상서비스가 보완돼야 하며 입체적 취재의 내용물까지 편집하여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시민앵커들이 영상매체에 익숙하지 않으며 경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거나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는 등 앵커에게 요구되는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은 곤란하다. 내용이 진솔한 것과 형식이 서툴거나 완성도가 낮은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시민앵커가 좀 더 설득력을 갖춘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려면 뉴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앵커들의 영상전달기법에 대한 스피치 훈련이 필수적이다.

시민앵커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하기는 쉽지 않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언론정치학과 교수

## 법대 야구부 LawBreakerS 작년 동아리그 챔피언 등극

지난 14일 학교 대운동장에서는 지난해 미처 끝내지 못한 각 단과대 야구동아리 간의 리그인 동아리그 야구대회의 2003년 챔피언결정전이 있었다.

2003년 전반기 우승팀 법대 야구부 'LBS(LawBreakerS)'와 후반기 우승팀 사회과학대 야구부 '투니티스'의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법대 야구부 LBS가 9 대 6으로 승리해 교내 최강 야구팀임을 과시했다.

92학번들을 중심으로 98년 법대내 야구 소모임으로 창단한 LawBreakerS는 '법법자'라는 의미를 갖고있다. 야구에서 멋진 플레이를 하려면 잘 때리

고, 잘 홈치고, 잘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LBS는 98년 창단하여 법대생들간의 교류의 장이되었고, 99년 2000년 교내 백상기 야구대회 2연패,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동아리그 야구대회의 원년(2000년)과 3회 대회(2003년) 챔피언 등의 성과를 올리며 명실상부한 교내 최강 단과대학 야구부로 인정받고 있다.

법대생들의 교류의 장이 되어온 LBS는 힘든 공부로 지친 몸을 운동으로 풀어내고, 주말마다 운동장에서 마음껏 화이팅을 외치며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해방구가 되어왔으며, 건전한 대

학 문화를 형성해 왔다.

LBS는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 각 대학 법대 야구부간의 리그인 '법대리그'에도 참여한다.

법대리그는 동국대법대, 경희대법대, 서울대법대, 성균관대법대, 연세대법대, 중앙대법대 등 6개팀이 참여하여 1년간 야구시합을 통해 그동안 갖기 힘들었던 각 학교간의 우애를 다지고자 학생들 스스로가 만든 야구리그이다. 법대리그에서도 LBS는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LBS에서는 야구에 열정을 가진 신입부원과 매니저를 모집한다. LBS홈페이지(http://Lawbreakers.wo.to)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방문해주었으면 한다.

실력이 없다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LBS에서 성심 성의껏 향상시켜 줄 것이니 열정만 갖고 오길 바란다.

박재홍(법과대 법3)

### Farewell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름다움인데 주위는 고요하고 꽃은 시들어 소녀의 옷자락만이 하늘거린다.

나의 눈물은 외로움으로

사막의 모래가 되었고

울로 피어나고 있는 꽃이

나에게 미소의 저주를

나의 인연은 오아시스가 되어

하나의 목마름이 되었고

인간의 욕망이 되었고

아름다운 소녀가 되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름다움인데

물은 항상 변화하고

구름은 쉽게 울러

소녀의 눈동자만이 그림자가 되었다.

서상훈(대학원 사회 석사과정)



## 동아게시판

손짓사랑회 27th 기초반 개강  
3월 15일 오후 6시  
학림관 J201

전주 명신고 동문회  
3월 20일 오후 6시  
학교 후문 대청마루 별실  
문의 010-9700-3241

멀티미디어공학과 세미나  
주제: 3D 게임 개발의 필요  
강사: 한정현(고려대 컴퓨터학) 교수  
3월 16일 오후 4시  
원흥관 E103

클래식기타 동아리 현어를 제24회 신입생 환영 연주회  
3월 20일 오후 6시  
본관 중강당

2004 새내기 농구대잔치  
3월 15일 ~ 31일까지  
민해광장

SAMETARU 개강총회  
3월 16일 오후 6시  
원흥관 E103

산업환경기술대학원 24기 개강미팅

3월 15일  
토마토

대한민국 해병대 동국 전우회  
13기 회원모집  
3월 19일 오후 6시  
명진관 앞  
문의 011-9567-8281

여수 향우회  
3월 20일 오후 5시  
불상 앞  
문의 016-624-1275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학과 지도교수 면담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학업지도교수 연구실

공학교육 인증제 길라잡이 비인더 배부  
3월 19일까지  
컴퓨터 공학과 사무실

정보통신공학(야) 사물학 재신청, 신규신청  
재신청: 3월 16일까지  
신규신청: 3월 17일 ~ 19일

동국관 M동 4층 로비  
3000원, 4000원

공대 졸업생 모임 홈페이지 오픈  
www.lovedongguk.com  
문의 016-725-4819

E.S.G 공개설명회  
3월 17일 오후 9시  
동국관 M303

아침예배  
대각전  
매일 오전 7시 50분

한문 스테디  
3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명진관 A308

쌍투스코러스 공개오디션  
3월 20일 오후 1시  
대상 : 03, 04 경인지역 대학생  
심사 : 자유곡 1곡 가장  
장소 : 쌍투스코러스 회관 (4호선 혜화역)  
문의 : 011-9112-4811  
018-208-4843  
http://www.sanctus.co.kr



1	2		3		4
	5	6		7	8
9				10	
11					
		13			
14					

### 가로열쇠

- 번호사가 특별한 사건에 대해 일정한 기간동안 검사가 되는 것. 특별검사의 준말.
- 김기택 감독이 베를린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영화. 여고생의 원조교재를 다름.
- 예전에 고가도르가 생기기 전 중구와 종로구의 경계를 흘렀던 하천. 지난해 7월 복원공사가 시작된 이곳에서 최근 유류·유적지 등이 발견됐다.
- 모두 다, 모조리, 온통이라는 뜻. 예) 내 인생의 00를 같다.
- 학내 3주체 중의 한 주체. 00, 직인, 학생.
- 친척에서 호주 또는 재산의 권리 및 의무를 물려받는 사람.
- 현재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우리나라 대통령.
-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일컫는 말.

##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

### 세로열쇠

- 법무부에 딸린 중앙행정기관의 하나. 검찰에 관한 사무를 통괄하는 곳.
- 중국 전한시대 역사가로서 역서사 '사기'를 저술.
- 여러팀이 일정 기간에 같은 시험수로 서로 대전해 그 성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방식. 월드컵 예선전이 이 방식으로 치러진다.
- 국가 비상사태 시 개인 기본권 일부에 대해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법 제도. 5.16과 광주민주화운동 때 이 힘이 선포됐다.
- 주민등록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아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현재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요즘 많은 대학들이 이를 위한 투표소 설치에 노력하고 있다.
- 불화, 불상, 공예, 건축 등으로 나뉘는 예술의 한 장르.
-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 영화 '매트릭스'는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 가사에 가락을 붙여 부르는 것.

### 1381호 정답

능	협	당	선	운	동
상	록	원			악
전			새	터	
과	결	정	내	승	
제		정	시	기	정
도	전			본	전
훈		명	진	관	

당첨자  
김은선(통계03졸)  
유영민(경영4)

'퍼즐-동대신문이 보인다'는 발행일차 동대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정답을 적어 본사 총무부에 응모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번 호 정답과 당첨자는 3월 22일자 신문에 게재됩니다.

편집자

# 매체비평

## 영화 편

### 사마리아

“종교적 상징과 은유로 현대의 잣대를 벗어났다”



김기덕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사마리아'.

김기덕 감독의 열 번째 영화 '사마리아'는 제목이 풍기는 어감처럼 종교적

상징과 은유로 가득 차 있는 영화이다. 주변부 인생들의 집고고도 집진 욕망의 집착을 현미경처럼 날카롭게 관찰했던 전작들과 달리 이 영화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 망원경처럼 관망하듯이 바라보고 있다.

전작과 달리 '끔찍한 통쾌함'은 사라졌지만(김기덕 매니아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소식이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는 부드러운 관망은 새로운 맛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여는 김기덕 영화처럼 이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다. 영화는 총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원조 교제하는 재영과 그의 친구 여진의 이야기 '바수밀다', 죽은 재영을 대신해 여진이 원조교제하는 현장을 목격한 후 벌어지는 아버지의 잔인한 복

수극 '사마리아', 여진과 아버지의 화해와 용서의 과정 '소나타'가 그것이다.

영화는 세 부분은 나누어져 있지만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전작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파란대문' '실제상황' '나쁜 남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의 자장 안에서 영화는 진동하고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 역시 비슷하게 전개된다. 원조교제를 통해 설법한다는 점에서 창녀가 구원자라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드러낸다는 비판이 먼저 꽃핀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조교제하는 딸을 아버지가 죽이지 않고 용서한다는 점에서, 남성인 아버지는 예수를, 딸인 여자는 간음한 여인을 상기시킨다는 점

을 들어 김기덕 감독의 여성 혐오가 간악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이런 비판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영이 원조교제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가정 배경이 없고, 섹스 후 목욕탕에서 여진과 몸을 씻으면서 동성애적 사랑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극도의 고독감의 일탈로 원조교제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수밀다의 포교와는 거리가 있다.

초반에 자살한 재영의 이야기가 다분히 판타지로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 판타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쉽지 않다. 또 하나 예수와 죄인의 은유를 남성과 여성의 단순 대입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전에 이것은 신과 인간의 용서와 화해의 과정이 아니던가.

이제까지 김기덕 감독의 영화가 '욕망의 청년'의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아버지'의 영화이다. 영화 분위기가 가라앉고 차분해진 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 영화는 성인(成人) 김기덕 감독이 들려주는 한 편의 설화이다. 현대의 잣대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이 때문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부터 김기덕 감독은 현실에서 발을 떼고 설화의 세계로 나가는 것 같다. 그것이 김기덕의 성장인지 퇴행인지 모르겠지만 차기작을 준비하는 그의 부지런함은 조만간 이를 증명할 것이다. 더불어 김기덕의 여성관 역시 좀더 분명해질 것이다.

강성률  
영화평론가, 본고 '영화의 이해' 강사

## 한국불교미술박물관 탐방

# 종교 · 문화 어우러진 우리의 전통예술

당신에게 묻는다. 만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과 스트레스를 피해 조용한 쉼터를 찾는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내려 창덕궁 돌담을 오른쪽에 끼고 걸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왼편으로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이라 적힌 파란색 간판이 보인다. 박물관이라 하기에는 다소 소박한 모습에 한층 더 호기심이 생기는 곳. 그곳은 8차선의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몇 분 들어가지 않아도 마치 한적한 휴양지에 온 듯한 편안한 느낌이 든다.

2층 사택을 개조해서 만든 이 박물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어려워하고 다소 무관심했던 불교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현재는 '중생의 염원'이라는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 조선 영조시대 불화 화가로 유명했던 '의겸'의 '수월관음도' 등을 비롯한 16~18세기의 불화, 불상, 공예 등을 볼 수 있다.

**특징 알고 감상해야**

서양미술만 보아오던 우리에게 불교미술은 다소 생소하고 어색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불교미술에는 오묘한 특징이 있어 이를 알고 본다면 한층 더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

불화는 주로 청, 적, 녹, 황, 백의 오방색을 석채, 분채, 금, 은 등을 재료를 사용해 그리며, 그리는 곳은 종이, 비단, 면, 나무판 등 다양하다. 또한 불화의 소재는

거의 공식화 돼있다. 예를 들어 사천왕을 그리면 사천왕의 위치와 그들이 들고 있는 지물은 어느 불화나 같다는 것이다.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불화이더라도 그 안의 인물이 들고 있는 지물을 보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불화의 경우 그 전과는 다르게 원근감이 있는데 이는 서양화의 원근감 기법이 불화에 도입된 것이다.

불화의 소재는 불상 뒤의 후불탱화들이 일반적이지만 '팔상도'와 같이 이야기가 있는 것들도 있다. '팔상도'는 부처님이 태어나서 해탈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불경을 토대로 그린 것이다. 이것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뤘지만 세세한 표현까지 묘사돼있어 이를 하나하나 관찰하는 재미가 있다.

불화뿐만 아니라 박물관에는 불상, 공예 등 다른 불교미술작품도 많이 전시돼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서 바로 보이는 '석조여래좌상'은 코가 없는데 이는 아들을 바라는 마음인 '기자신앙' 때문에 누군가가 코를 베어간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옛 유물을 보면서 시대적 상황을 짐작하는 것은 불교미술을 즐겁게 감상하는 방법이다.

불교미술은 언뜻 보면 우리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문화 속에 녹아 함께해온 분야이다. 때문에 스스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생활과 접목시켜 훨씬 재밌게 이를 접할 수 있다.

**'재밌게' 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듯 불교미술의 산 배움터가 있음에도 관심을 갖는 이가 적은 것은 안타깝다. 박물관 학예사 정유미씨는 "관람객의 50% 정도가 전공자"라며 "일반인들이 불교미술을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분야의 과제"라고 말한다.

이제 만약 당신이 뻘뻘한 서울 도심에서 일탈하고 싶다면 옛 왕이 있던 창덕궁을 창박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불교미술 속에 숨은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한국불교미술박물관으로 발걸음 하는 것이 어떨까.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본고 불교미술전공학생 인터뷰

## “옛 그림 모사 토대로 재창조 하는 것이 매력”



조하나(불미4)

본고 예술대 불교미술전공 4학년에 재학중인 조하나 양을 만나 불교미술의 매력 등에 대해 물어 보았다.

- 불교미술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 =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미술을 공부하게 됐다. 그러던 중 우연히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며 인간의 능력을 무한하게 평가하는 불교에 매력을 느끼면서 불교미술을 접하게 됐다.

- 불교미술의 매력은 무엇인지.
- = 역사가 1600년이 된 불교미술은 우리나라 미술 문화재의 90% 이상이라고 한다. 즉 불교미술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술을 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 때문에 불교미술을 하다보면 전통적인 면을 많이 느낄 수 있다. 또한 다른 상업적 미술과 다르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 그리고 불교미술의 시작은 베끼는 것이다. 옛 조상들의 그림을 모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중엔 나름대로 재창조하게 된다.
-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 이런 재창조하는 과정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 그림소재는 어떻게 찾는지.
- = 경전의 한 부분을 해석해 그림을 그린다. 예를 들어 경전에 부처님과 동자승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장면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리는 것이다.
- 하지만 자신의 편협한 지식으로 경전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불교학을 어느정도 공부한 상태에서 신중히 해야한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관경변상도> 김정현(02졸)